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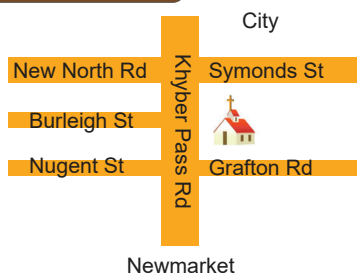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행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 2016년 남은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 나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3. 제 2회 전교인 성경퀴즈대회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동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어우러지는 기쁘고 복된 시간을 기대합니다.
4. 2,3여선교회 연합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갖습니다. 깊은 나눔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득하길 소망합니다. 일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5시 - 6일(주일 오전) 장소: 아가페 기도동산, 주소: 187 Red Hills Rd Taupaki 09-832-0691
5.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단은 잘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6. 오늘 점심 식사로 섬겨 주신 주방 봉사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7. 새벽기도회가 매 금요일 새벽 5시 50분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8. 이태한 담임목사는 안식월을 갖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 동 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 이 태 한
- 부 목 사 : 심 창 진
- 부 목 사 : 이 성 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8권 44호
2016년 10월 30일 주일

2016년 표어

거룩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담/임/목/사
이태한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성철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 예배로 부름 데살로니가전서 5:16-18

◎ 찬 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대표기도 박제용 장로

성경봉독 시편 118편 1-14

찬양대 찬양 참중으신 주님/
나무집자가 찬양대

설 교 하나님께 감사하라/이성철 목사

찬 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계신 주(1,2절)

◎ 축 도 이성철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성경 퀴즈대회로
함께 합니다.

수요 예배

찬양 수요 찬양단

기도 한누리 집사

성경봉독 골로새서
2:8-3:4

설교 진리의 재발견
심창진 목사

광고 인도자

찬송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기도 다같이

금주의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2. 진리의 영에 붙잡혀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3. 기후변화, 분쟁과 난민사태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세계인들이 모두 기후변화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선교란 이번 주는 안식월 중이신 이태한목사님의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동안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로 잘 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을 떠난지 두 달이 채 안되었는데 2년의 세월이 흐른것처럼 길게 느껴지고 여러분 모두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모든 성도들이 맡은 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큰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은 성도들의 합심기도와 끈끈한 주의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두 성도의 가정애 축하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귀한 새 생명 위에 흘러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아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달 초순까지 LA에 2주 조금 넘게 있으면서 숙소를 네번이나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어른들이 '집 떠나면 고생이다' 는 말씀이 떠올랐고 정말 그렇구나 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집 떠나면 고생이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좋던지 그렇지 않던지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집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벗어나면 자유로와지지 않을까? 하는 거짓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것 같다는 그럴듯하고 괜찮은 생각 같다는 자만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면 고생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신앙의 현 주소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잠시잠간 후면 다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다시뵈겠습니다.

기도제목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거하도록.

11월 교회일지

금요일저녁기도회: 11월 11일(금요일) 예 배 안 내: 손조훈/박정은
대림절 1: 11월 27일(주일)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선교회주관예배: 11월 30일 최희숙
(수요일)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11월 예배봉사자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유현남
민경아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강동호 집사
다음 주일: 정덕수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효설 자매
11월 9일 수요: 이규임 권사
11월 9일 애찬: 박혜숙 권사
11월 13일 주일: 고성일 장로
11월 13일 청년부: 김민한 형제